

경제

전남도-중소기업중앙회 선정 전남 강소기업

친환경 테이프 양산 日·유럽 수출 준비

(주)호산피앤티

(주)호산피앤티는 나주시 동수동 나주산단에 있는 테이프 생산 업체다. 4년간의 연구 끝에 솔벤트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접착 테이프를 개발해 본격 양산에 착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가정이나 마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박스 포장용 테이프는 유성 접착제를 사용해 인체에 해로운 솔벤트 성분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친환경 OPP 테이프는 수성 접착제를 사용한 적외선 건조방식을 적용해 솔벤트가 전혀 함유돼 있지 않다. 특히 기존 테이프는 시간이 흐르며 접착력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지만 호산피앤티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데다 시간이 갈수록 접착력이 강해지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환경기준이 까다로운 일



호산피앤티의 친환경 접착 테이프

본과 유럽 등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회사는 국내 라면업체로부터 일본 수출용 박스 테이프 납품을 위한 샘플의뢰를 받았고 미국 월마트와 중국 업체와도 수출 상담을 진행중이다. 나주공장에서 현재 하루에 50mm×50mm 테이프 5만개를 생산하고 있다.

1980년대 전남대 공대 학생회장

출신인 이인호 대표는 지역내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여명의 직원을 모두 현지에서 채용했다. 이 대표는 "테이프에 기업 브랜드 로고를 넣는 인쇄 잉크도 친환경 잉크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며 "파스나 밴드 등 의료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6년來 최고

올 10월말 0.94% 2년만에 두배 이상 상승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집단대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0월 말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94%로 한 달 전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10월 말 0.44%이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년 만에 두배 넘게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0.94%) 이후 가장 높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아파트 집단대출(분양 후 입주 전까지의 중도금과 이주비 등 대출) 연체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0월 말 1.96%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12월 말(0.95%) 이후 가장 높았다.

집단대출 연체가 쌓이는 까닭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부존재 소송 때문이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44%로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다. 가계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15%로 한 달 전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친 가계대출 연체율은 1.01%로 다시 1% 위로 올라갔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말에도 1.01%를 기록해 2006년 10월(1.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42%에서 1.63%로 0.21%포인트 뛰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27%포인트 오른 1.24%,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20%포인트 오른 1.77%다.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진그룹에 대한 대규모 여신이 연체된 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더한 전체원화대출 연체율은 1.35%로 한 달 전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원화대출 잔액은 6조1000억원(0.55%) 늘어난 1109조6000억원이다. 가계대출이 2조1000억원 늘어난 458조4000억원, 기업대출이 3조6000억원 늘어난 628조5000억원이다. /연필뉴스



에버랜드 디자인 공모 설명회

에버랜드는 29일 오후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전국민 대상 '에버랜드 상품디자인 공모전' 접수(12월 1일부터 두달간)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상봉, 왕춘호, 최범석 등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 아트 디렉터 등이 참여해 특별강연을 펼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심상에버랜드는 29일 오후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전국민 대상 '에버랜드 상품디자인 공모전' 접수(12월 1일부터 두달간)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상봉, 왕춘호, 최범석 등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 아트 디렉터 등이 참여해 특별강연을 펼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세계 첫 고효율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주)썬테크

(주)썬테크는 수전에 본사를 둔 발전기 생산업체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고효율 영구자석 발전기를 개발해 지난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영구자 부문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고효율 영구자석 발전기의 효율은 98%에 이를 정도다.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7년 미국 피츠버그와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발전품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3대 발전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효율 발전기는 10~2000kW급으로 상용 및 비상발전용으로 사용되는데 기존 발전기보다 6% 가량 효율이 높다. 600kW를 기준으로 할때 연간 상용은 1억원, 비상발전용은 1000만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있다.

5%대의 전압 변동률과 0.5초 이



썬테크의 고효율 영구자석 발전기

내의 전압 복구시간을 자랑할 정도로 안정적인 출력도 이 회사 제품의 경쟁력이다. 썬테크는 고효율 발전기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형성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전기구동 모터 생산은 물론 소수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선유 대표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경쟁력있는 기술력이다"라는 모토로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며 "고효율 발전기 개발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매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연말 기업경기 최악

BSI지수·전망지수 각각 7P·8P 하락

지역 기업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4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말 경기에 대한 전망도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의 매출액 20억 원 이상 기업 460개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의 11월 업무현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도는 61로 전달보다 7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2009년 3월(50)이후 4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

록한 것이다.

11월 매출 BSI(69)와 생산 BSI(80)는 전달보다 각각 5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으나 채산성 BSI(79)는 3포인트 상승했다.

또 12월 업황전망 BSI도 60으로 전달보다 8포인트나 내려가면서 2009년 3월(52)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제조업의 11월 업황 BSI는 68로 전달보다 4포인트, 12월 업황전망 BSI는 64로 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매출 BSI(72)와 인력사정 BSI(83)는 전달보다 각각 9포인트, 5포인트

내려갔다.

12월 매출전망 BSI(73)와 인력사정전망 BSI(86)도 각각 4포인트와 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체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6.0%), 불확실한 경제상황(18.3%), 원자재가격상승(9.9%), 수출부진(8.9%),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7.4%), 경쟁심화(5.2%) 등의 순으로 답했다.

BSI는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면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보해 하반기 공채 고졸자 16명 채용

보해는 29일 하반기 공채에서 고교 졸업 학력자 16명을 최종 선발, 회계와 영업 등 업무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공채는 지난달부터 한달여간 진행됐다.

보해 관계자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학력이 아닌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유망한 고졸 인력을 선발해 우수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고졸 공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에쓰오일 "한국실리콘 법정관리 신청"

에쓰오일은 태양광업체 한국실리콘이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한국실리콘은 태양광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로, 생산 규모에

서 OCI에 이어 국내 두 번째다. 에쓰오일이 자본 33.6%(2673억원)를 보유,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차입금 및 금융비용 증가·태양광 시장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신규자금 유치 실패 등으로 자

금난이 심화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에쓰오일은 설명했다. 한국실리콘은 전달 만기가 도래한 어음 80억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올해 1~3분기 53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전기요를 연체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실리콘 여수공장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연필뉴스

▲ 코스피지수	1934.85 (+22.07)
▲ 코스닥지수	496.73 (+2.25)
▲ 금리 (국고채 3년)	2.83% (0.00)
▲ 원·달러 환율	1084.01원 (-2.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펠릿 불꽃난로 온풍기

기존 난방비용대비 70%절감효율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펠릿불꽃난로 온풍기!!

A형	불꽃난로 제품규격	B형
단독형(스토브식)난로	형식: 220V, 60Hz 외형 치수: 500 x 530 x 870mm 중량: 약 65kg 일 8시간 기준 약 10kg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8kg 최대 20kg 60W 약 83㎡(구 약 20~30평형)	단독형(스토브식)난로
	형식: 220V, 60Hz 외형 치수: 550 x 750 x 1050mm 중량: 80kg 일 8시간 기준 약 12kg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9kg 최대 30kg 70W 약 149㎡(구 약 40~50평형)	

연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주택/사무실/영업장/공장 등 실내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하며 뛰어난 난방효과와 함께 고상하고 우아한 실내분위기 연출효과!!◆

제품명	사용연료	일 8시간 기준 사용량	금액(한시)
펠릿난로	우드펠릿	약 10kg	3,500원
석유온풍기	석유	약 16L	22,400원
전기온풍기	전기	약 32kw	10,163원
석유난로	석유	약 10.4L	14,560원

단, 전기온풍기는 0~100kw 사용량을 전우의 금액 사용량이 높을수록 최고 7개까지 증가 30일 사용시 726kwh(17일 약 13.93원)

펠릿 연료란? 목재를 연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석유 대비 값이 싸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로써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시우실 시우장

문의 070-4111-7823
전화 010-9468-3282

대리점 · 취급점 · 딜러
영업사원모집 (유사업종 우대)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 · 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자마자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곤 한다. 이런 증상은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란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현상(二重像)을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맥,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런 검사도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진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맥맥,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인다라한의원의 대표원장 한의박사 김영삼원장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 광주은행 6층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피클스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1016-09-9820호(광주)